

사상사 차원서 천착해본 '통일의 화두'

김용옥 외 지음 「삼국통일과 한국통일」

김찬호

연세대 강사·문화인류학

그동안 통일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정치체제 중심의 절차적 방법론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감상적 민족주의의 운동적 열정으로 채색되어 왔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담론체계는 이념적 지향이 완전히 상반되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빠뜨리고 있다는 공통성을 갖는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같은 단순한 질문이 그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기에 묻을 자체가 금기시되고 반동으로 규정되기도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실상 엄청난 동상이몽일 수 있다. 대부분 호풍한 탐욕과 권력의 동기로 충전된 그 집단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고서는 이른바 평화통일을 성취할 수 없다. 통일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도둑처럼 오는 것이면서도 그 완성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몇백년이 걸리는 역사적 작업이기 때문이다. 독일과 예멘의 진통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타협이나 도덕적인 결단의 문제일까? 「삼국통일과 한국통일」에서는 그 이면의 철학적 차원을 파고 들어간다. 그것은 곧 세계관과 인간관의 문제이다.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작업에 깔려 있는 암묵적 전제와 역사적 비전에 새삼 환기해야 하는 것이다. '실학'이나 '봉건제' 같은 개념 또는 맑스류의 역사 단계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온 것은 단순히 어떤 분과학문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과 역사에 대한 서구적 이해의 틀을 아무 생각없이 차용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갖지 못했다. 민족의 분단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몰주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자적 자기 동일성의 절대불변함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추구해온 서구의 근대철학사는 그 근거로 이성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마리로 인간과 사회를 완전히 파악하고 재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그러한 관념으로 잡히는 것은 늘 부분일 뿐이다. 인간(Interject)을 개체(Individual)와 주체(Subject)로 인위적으로 분열시켜, 그 파편 하나씩을 붙들고 치열하게 벌인 싸움이 바로 좌우의 대립이다. 일찌기 원호가 경계를 축구했던 언어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통일은 그러한 싸움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은 거짓 문제설정에서 과감하게 해탈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 및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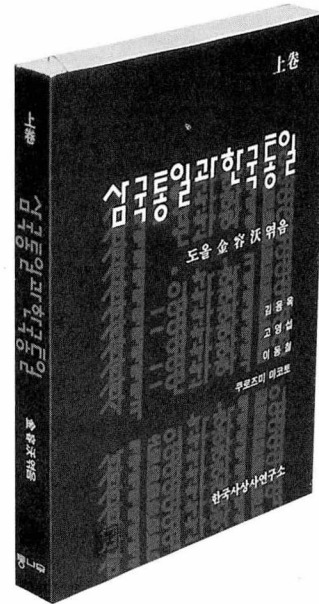
통일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도둑처럼 오는 것이면서도 그 완성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몇백년이 걸리는 역사적 작업이다. 독일과 예멘의 진통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타협이나 도덕적인 결단의 문제일까? 이 책은 그 이면의 철학적 차원을 파고들어간다. 그것은 곧 세계관과 인간관의 문제인 것이다.

주관에서 출발해야 함이 당연하다.

한국사상사연구소 연구원들의 토론의 결실

김용옥 선생이 개척해온 氣 철학에서는 사람을 이성에 의해 통전되는 고립된 체계로 보지 않는다. 대신 臟理의 질서 속에 움직이는 몸에 초점을 맞춘다. 그 질서는 氣가 聚散을 계속하는 동적인 평형상태이고 그 기의 흐름은 하늘과 땅을 두루 관통한다. 이렇듯 몸과 우주를 하나로 꿰뚫어보는 세계관으로서 우리는 서양의 분열적인 사유를 탁월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의 궁극적인 지표를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추상적인 듯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함축한다. 이성의 잡다한 기능 계발에만 몰두해온 근대 교육을 타파하고 자신의 몸의 가능성을 최대한 그리고 다양하게 발현하도록 복돋아야 한다는 '공부론'. 생태학적 순환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천지와 사람이 어울려 사는 '마을공동체의 디자인' 등은 통일을 위해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준다.

이상의 통일론 大綱은 천오백년 삼국통일 당시의 사회상황 및 지성사적 문제에 대한 담구로 이어지고 있다. 고영섭 씨는 '원호의 통일학'이라는 논문에서 정치사 중심의 통사가 소홀히 해온 보편적 인간에 대한 이해를 원호에 적용하고 있다.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남의 욕망을 침해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아집의 그물에 걸려 발버둥치는 중생의 삶을 구제할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들과 씨름하면서 원호는 一心, 和靜, 無碍라는 말로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緣起의 사회적 실



현에 대한 그의 사무친 통찰은 스스로 욕망을 절제하고 자율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방향 제시에 이르고 있다.

이동철씨는 '삼국통일과 한국통일 : 문화적 과제와 전략'이라는 글에서 삼국 가운데서 왜 신라가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백제는 가장 먼저 찬란한 국제 문명에 도달했지만 주체적인 역량을 충분히 성숙시키지 못한 채 개방과 전략에 너무 치우쳐 통일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고구려는 전쟁과 정복에는 능했지만 백성을 다스리고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취약했다. 그에 비해 신라는 문화적으로 가장 뒤늦었지만 체제의 정비를 통한 내실화, 외래문화와 토착문화의 조화, 국가의 장기적 전략수립과 단계적인 실행, 국가적 이념체제를 통해 통일신라라는 새로운 문명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나라들의 통합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 질서와 문화의 창출이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명권의 탄생에 소중한 기틀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통일을 앞두고 그러한 보편적인 문화를 잉태하고 있는가? 이 책 끝에 실린 쿠로즈미 마코토 교수의 '한국의 통일 에너지는 동아시아의 희망'이라는 글은 그 점에 관련해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일본과 비교하면서 타진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일본인들은 주어진 몫에 충실하지만 자기가 몰입해 있는 시스템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윤리감각이 없다. 그에 비해 한국은 늘 원대한 '理'를 원론적으로 추구하는 사상적 전통을 가진만큼 보편적인 종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행위 양식을 보면 저마다 사사로운 연줄로 맺어진 또아리에 매몰되어 그 힘을 절대화하고 있다. 그러한 폐쇄성을 넘어서 공공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 순수한 인간이라는 보편자를 의식할 수 있는가? 한국의 통일은 그러한 사회 사상적 모색의 에너지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라는 필자의 충고는 졸렬한 집단주의가 체질화되어 있는 우리에게 뼈저리게 다가온다.

통일은 緣起적 세계관의 시민덕성 요구해

이 책은 이렇듯 여러 사람의 글로 묶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비슷한 표제의 논문들을 병렬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심층적인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사상사연구소 연구원들의 집요한 공부와 토론을 거쳐서 주제를 충분히 소화해서 나온 책이다. 김용옥 선생이 그동안 스무여권의 저술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이 책에서는 통일을 화두로 해서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회적 구현을 위한 문화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권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서양 사상사, 고대 국가의 기원과 구조, 한국 현대사 등의 맥락에 접목시켜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통일 이후 전개될 사회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그리고 내 몸 안에 복선으로 깔려 있다. 산골짜기마다 건물과 도로를 마구잡이로 짓는 개발시장주의, 천박한 자극으로 길들여지면서 타인에게는 무관심해 지거나 공격적이 되어가는 대중 정서. 이惡한 몸의 관성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통일을 우리는 바라는가? 분단은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일상적 삶의 분열의 문제이다. 통일은 개체와 전체, 규율과 자유로운 창조, 몸과 우주 사이의 이항대립을 파기하고 緣起적 세계관에 입각한 자율과 행동의 시민 덕성을 체득하는 작업이다. 인류사에 새로운 전망을 탐색하고 제시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그 출발은 자기를 돌아보는 눈을 똑바로 뜨는 것이다. 「삼국통일과 한국통일」은 그 向我的 깨우침이다.

통나무 / A5신 / 상·하 730면 / 각권 6500원